| 이름 | 김 일 동 |
|----------------|--|
| 연령대 | 30 ~ 40대 |
| 성별 | 남성 |
| 선호도 | 가시성/가독성/기능성/신속함 |
| 숙련도 | 다양한 분야의 정보 검색 능력과 판단 능력 |
| 태도 및 특성 | 4차산업 발전으로 인한 빠른 정보의 흐름을 따라잡고 싶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 휘발성도 강하기 때문에 뉴스와 잡지를 보면서 사업 아이템이나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정보를 찾 는다. |
| 주 사용기기 | 스마트폰/태블릿PC/데스크탑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
| 주요 방문 사이트 |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경제,과학 커뮤니티/ 유튜브 |
| 경험 여부 | Chat GPT의 정보를 갑지와 뉴스로 남들보다 먼저 알고난 후 접속한 경험 |
| 사이트 외 정보 습득 | 학술/서점/주식 |

기 본 정 보

나이 : 35세 수입 : 월 300 결혼여부 : 미혼 직업 : 사무직

가족관계: 부모님, 남자 및 여자 형제

취미 : 독서 및 정보 검색

행 동

- 직업 특성상 컴퓨터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뉴스나 갑지를 매일, 매주 보며 정보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 개인적인 시간을 중하게 여기고 직장인으로서의 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항상 고민한다.
- 오래 전부터 자신에게 정보의 흐름을 잘 알아보는 기질이 있음을 굳게 믿어왔으며, 경제 및 과학에 관련된 유튜브를 자주 시청한다.
- 정보의 제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는 것보다 직접 뉴스나 잡지로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정보의 판단 능력 만큼은 탁월하다고 자부한다.
- 추가하는 것 보다는 빼는 것에 가치를 둔다.

니즈 / 불편사항

-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 사이트 내부 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으면 한다.
- 가시성, 가독성이 안 좋으면 정보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이트를 끄고 싶다.
- 사이트에 있는 정보의 출처를 공지 안 하거나 공신력 없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에 사이트 를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다.
- 정보 내용과는 무관하게 관심을 끌려고 지은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사용한 경우에 사이트를 두번 방문하는 일은 없다.
- 광고들이 곳곳에 있어서 정신이 없다.

가치 목표

- 사이트 화면은 보기에 편하고 쉬워야 한다.
- 사이트가 화려하고 재밌을 필요는 없지만 예뻐야 한다.

해결 방안

- 카테고리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정보의 기준으로 찾기 쉽게 만든다.
- 정보의 출처와 확실히 공지한다.
- 광고는 익숙한 곳에 배치하거나 광고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없어야 한다.
- 사이트 접속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한다.

맥락 시나리오

김일동씨는 35세의 직장으로, 평생 일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4차산업의 과도기로 인한 기회의 창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대중성에 맞춰진 정보보다 사업 아이템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 때문에 필요 없는 서두나 정보의 맥락을 빠르게 알 수 없는 사이트를 싫어해서 최대한 깔끔한 사이트가 좋다고 느낀다.